

민선8기 전북도 기업유치 전략 치밀해진다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 비전 발표... 3대 전략·9개 분야·22개 세부 과제 압축, 도지사도 기업유치 적극 활용

전북경제 부흥을 위한 민선 8기 전북도정 핵심사업인 '대기업 유치'를 비롯한 기업 유치 전략이 더욱 치밀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13일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 비전과 과제 등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김중훈 경제부지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퍼스종합기술원, 관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수립된 전략은 미래 성장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 경제 르네상스 도약이란 비전으로 3대 전략 9개 분야 22개 세부 추진과제로 압축했다.



전북도는 13일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비전과 과제 등을 담은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김중훈 경제부지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퍼스종합기술원, 관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 비전 및 전략 설정을 통해 도정 핵심 목표를 도정 내부 직원들과 14개 시·군 기업유치 담당 직원들에게 명확히 공유하고, 연결되는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업무를 추진해나갈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경제부지사 기업유치지원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 기술과 내용의 심화 발전을 위해 자문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다양한 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도청 내부 직원들의 직접 수행 연구영역을 통해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을 최종 집대성

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등이다.

도지사가 기업 유치의 선두에서 전력 부구하는 내용을 담은 세부 추진과제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업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도정방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지사가 직접 뛰고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민선 8기 도정의 열정적인 자세와 태도가 기업유치 전략에 담겨 있어 기업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고급, 고화, 고물가로 대변되는 3고(高) 현상으로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신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수요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우리 지역으로 충분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움직여 기업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기업유치에 주효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부지사는 "항상 직원들에게 지휘부를 충분히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주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 발전과 이를 위한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숭이 두창 '주의' 단계로 격상

도, 엠폭스 환자 증가 따라 대응 조치 강화 추진

최근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엠폭스 위기경보수준을 13일부터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운영해 대응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한 적은 없으나, 현재까지 5건의 의심사례 신고가 있었으며, 최종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엠폭스의 전 세계적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의 발생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1주 내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동 환자들은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 밀접접촉이 확인돼 국

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추정 감염원 등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 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엠폭스 의심증상자와의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등)이나 사용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세면대 등)의 접촉을 삼가고,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을 삼가야 한다.

/김재훈기자

지적재조사사업, 관계기관들 '힘 모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상호협력·소통강화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13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본부와 민간태행자(주)원공 간정보 등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신속한 민원해결과 사업기간 단축 등에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수행 범위와 일정조율, 토지 경계 설정·조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중이직적을 실제 토지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등

도민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도는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국비 67억 원을 투입해 55개 지구, 3만, 70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지적재조사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관·공이 함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국비 236억 원을 확보해 도내 235개 지구 12만13,956필지(97.9km²)에 대한 지적불합합 토지를 해소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김재훈기자

푸드테크 공론의 장 '전북도 푸드테크 함께혁신 포럼' 성료

'식품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주제 개최... 롯데·농식품부·대학 등 협력 발표

전북도와 (사)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회장 신동화)은 학계 전문가, 대학생 등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라북도 식품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전략) 수행전략'을 주제로 2023 푸드테크 함께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푸드테크(첨단식품기술)는 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BT), 인공지능(AD) 등 4차 산업기술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산업으로,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2에서 5대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올해 푸드테크 함께혁신 포럼 주제어인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내부 기술력과 외부자원을 활용한 혁신 전략으로, 경영규모는 영세하지만 잠재성이 큰 전북 도내 식품기업의 외부 투자와 판로 확대를 위해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다.

포럼의 세션 I에서는 '푸드테크의 민·관 협력 혁신'을 주제로 롯데 중앙연구소 김정균 전문위원,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혁신식품국장, 정도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이 기업·연구소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와 민관 푸드테크 협력 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어 세션 II에서는 전북대 신동화

명예교수, 전북대병원 채수완 임상시험지원센터장이 각각 새만금 식품 수출 연계 구상과 K-Food 기반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푸드테크 오픈 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했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푸드테크는 다양한 기술이 융합해 함께 혁신을 이뤄내는 신산업으로써 대중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에서 푸드테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도, 성장단계별 마을기업 16개소 선정... 국비지원 확정

마을기업 육성으로 주민 소득·일자리 창출·공동체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마을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총 16개소(신규 8, 재지정 3, 고도화 5)가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2010년 행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지정절차는 시·군 적격검토, 도청간지원기관 현지실사 및 광역심

사, 행정부 현지실사 및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을기업을 지정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되며, 신규 마을기업 사업종료 이후 별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재지정시 최대 3천만원, 고도화시 최대 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마을기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구축 등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전라북도 마을기업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5월까지 기동단속반 편성 단속

전북도는 고사리, 두릅 등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가 시작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5개반 60명

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와 병행해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